

7/26/26

설교 제목: 오병이어의 기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4 장 13-21 절

오천 명을 먹이시다(막 6:30-44; 눅 9:10-17; 요 6:1-14)

-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당신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십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다음 차례로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의 적의를 피해 떠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한적한 빈 들로 가십니다.

-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때 마침 열 두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터라 그들에게 휴식도 주고, 그들이 행하고 온 선교 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선교 훈련도 시킬 작정이셨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얼마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위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과 이적들은 예수님 공생애의 절정을 이룹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해변을 따라 걸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날이 저물어 저녁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들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만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곳은 빈 들인지라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자니 가진 돈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말대로 무리들을 해산시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참고로 모인 무리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오 천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이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자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상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들을 해산시키지 말고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치유의 사역으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의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에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마가 복음은 무리를 먹이는데 드는 돈이 이백 데나리온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무리를 먹이는데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경제적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양의 먹을 거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진 것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제자들을 시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결과 거기에 있던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다

하늘 나라의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천 명, 떡 다섯 개, 열 두 바구니 등 숫자 5와 12는 모세 오경과 열 두 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의미있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 낸 떡은 인류의 영적 생명을 위해 찢기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육체의 모형입니다.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자 끊임없이 손으로 떡을 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의 육과 영의 양식인 떡을 떼어 주고 계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 과정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 세상에 전달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받고 잔디 밭에 모여 앉아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풍성하게 먹고 있는 이 장면은 이사야 25장에서 묘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아름다운 연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 25: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 25: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식민 통치와 폭압 정치로 궁핍을 피할 수 없던 백성들이 앓아 있던 광야에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출애굽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죄와 죽음,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오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 주기 원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던 곳, 빈 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결핍과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무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자, 빈 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연회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오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를 가득 채울만큼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결핍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리자, 무리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열 두 바구니가 남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도 사용하시고, 작은 헌신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 놓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나누어주신 떡은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떡을 받는 사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떡을 나누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